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 조

발행일/2006년 8월 9일 (수)

발행인/전창진 편집/길소희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http://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1. Creation (17) 회전하는 엔진 - 이종현 역

2쪽

2. IMPACT (32) 진화론은...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4쪽

3. 성경과 과학 (1) 에덴동산 - 신동수

8쪽

4. 참 아름다워라! (17) 제왕나비의 대변신 - 서중학

9쪽

인 사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면서 휴가의 계절입니다. 이 기간은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이 세상이 우연과 진화에 의해 생겼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히 차이를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논리로 주장하는 창조과학과 더불어 우리의 삶과 추구하는 가치의 구별이 세상에 선언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임진규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7,8월엔 정기모임이 없습니다.)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 (053) 743-6058

내용: 미정



회전하는 엔진(Rotary Eng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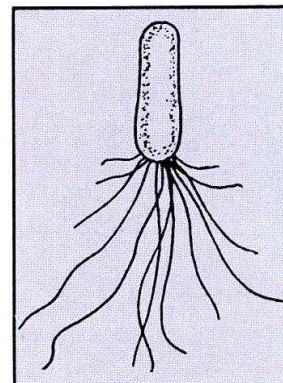
진화에 대한 도전(A Challenge to evolution)

바퀴나 기어 그리고 회전하는 모터 같은 회전 장치들은 자연 세계의 생명체에 들어있는 특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그 이유를 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푸쉬-풀(밀고 당기는) 방식의’ (근육과 같은) 엔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적으로 진화된’ (따라서 자연선택이 될 수 있는)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초기의 덩그스름한 작은 덩어리 같은 조상들은 적으로부터 멀리 가거나 먹이를 향해 가는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수축시킬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능력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Rotating devices, such as wheels, gears and rotary motors do not seem to feature in the natural world of living things. Evolutionists would claim that they know why. They believe they can explain the origin of ‘push-pull’ engines (like muscles) for motion, by arguing that one can imagine ‘partially evolved’ stages which might be useful (and thus favoured by selection). For instance, an early blob-like ancestor could get benefit out of a very basic ability to contract itself in a given direction—away from an enemy or towards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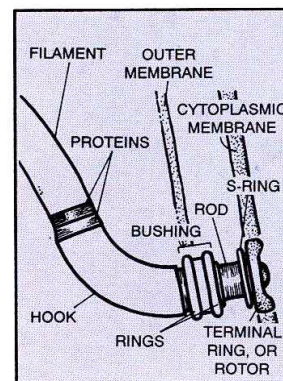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동물이 바퀴를 진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타고 다닐 충분한 고속도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전 장치는 처음에 출현할 때부터 크게 기능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바퀴가 둥글게 되어 가는 도중에, 혹은 아직 그 축 주위로 회전할 수 없을 때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므로 도태되었다. 푸쉬-풀 방식의 엔진과는 달리 생물체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작동하는’ 회전엔진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Right (top): Diagram of a bacterium showing the whip-like flagella protruding from its body.

Right (bottom): Diagram of a salmonella flagellum showing its attachment to the motor, which is embedded in the cell membrane. The terminal ring is believed to rotate with the rod, which transmits torque to (that is, turns) the filament.)



(위) 몸으로부터 돌출된 채찍 같은 편모를 보여주는 박테리아의 그림



(아래) 세포막에 묻힌 모터에 부착된 살모넬라 편모의 그림. 터미널 링은 섬유질에 토크(즉, 회전)를 전달하는 막대(rod)와 함께 회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살모넬라*와 *대장균*(모든 사람의 장(腸) 속에 무수히 존재하는)을 포함하여 보통의 박테리아가 회전하는 엔진을 갖고 있음이 요즘 밝혀졌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생명체의 외부 막으로부터 돌출되어, 편모라고 부르는 채찍 같은 섬유질 구조의 다발이 있는데, 작은 분자 모터가 그것을 회전하여 유기체를 추진한다. (It is therefore fascinating to note that common bacteria, including *Salmonella* and *Escherichia coli* (which are present in vast numbers in everyone's intestine) have now been shown to possess rotary engines. Protruding from the outer membrane of the creature are whip like bundles of filamentous structures called flagella, which are rotated by tiny molecular motors to propel the organism.)

예를 들어, *살모넬라*는 이러한 엔진 여섯 개 혹은 일곱 개가 동시에 작동한다. 비록 이것들의 지름은 1 밀리미터의 백만분의 30에 불과하지만, 이것들의 엔진은 고정된 링 혹은 고정자 속에서 회전하는 회전자를 갖는다는 점에서 사람이 만든 전기 모터와 유사하다. 이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터는 **분당 약 15,000 회전 정도의 놀라운 속도로 회전한다!** (*Salmonella*, for instance, have six or seven of these engines working simultaneously. Although they are only 30 millionths of a millimetre in diameter, these engines are analogous to man-made electric motors in that they have a rotor which revolves inside a stationary ring, or stator. These incredibly energy-efficient motors whiz around at the incredible speed of some 15,000 revolutions per minute!)

숙련된 일본 생물물리학자 팀은 이들 모터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수년간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편모 섬유질 속의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지조차 완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A team of skilled Japanese biophysicists has been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for some years trying to understand exactly how these motors work. So far, it is not yet fully known even how the molecules in the flagellar filaments are arranged.) 그 연구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이 환상적인 초소형 기술의 응용을 위해 인류가 언젠가는 이 놀라운 설계의 정보를 모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다.

놀라운 정도로 복잡한 물질의 배열이 어떻게 해서 우연한 돌연변이의 선택에 의해 진화가 가능하 다거나 생각할 수 있다거나 상상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대안적인 설명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It can be safely stated that no one has the faintest idea how such incredibly complicated arrangements of matter could have possibly, conceivably, imaginably evolved by selection of chance mutations. The alternative explanation, that they were created, is much more reasonable.)

(Science Spot, Creation ex nihilo, Vol. 15, No. 1, 1993) **참조**

진화론은 자연법칙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 않다 (Evolution is not based on natural laws)

먼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진화론적 이론을 살펴보자.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전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론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빅뱅이론으로 불리고 있다. 표준 빅뱅이론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이론을 구할 다른 무언가가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공대에 있는 앨런 구쓰(Alan Guth)가 양자이론에 근거해서 빅뱅 전에 가짜 진공(false vacuum)의 요동이 일어났었다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진 그 입자(혹은 무엇이라고 불리던 간에)는, 포도 크기 정도의 무엇인가로 팽창했다. 이 시점으로부터 우주의 잔여물이 초기의 빅뱅 이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아원자 입자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수소(75%)와 헬륨(25%), 그 다음엔 별과 은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양계 등등이 우리가 나타날 때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 가상적 초기 상태 동안에는 어떠한 자연법칙도 존재하지 않았다. 진화론자들은 알려진 우주의 움직임을 현재 지배하는 자연법칙이 빅뱅에 의해서 어찌되었든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주의 기원은 자연법칙에 바탕을 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창조가 배제되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주의 기원에 관한 모든 진화론적 이론들도 또한 배제되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우주에는 정확하지 않으면 우주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아마도 50개의 물리상수가 있을 것이다. 상수들이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어질 수가 없다. 상수의 예로는 우주 상수(볼츠만 상수, 플랑크 상수, 그리고 중력 상수), 소립자의 질량(파이온 정지질량, 중성자 정지질량, 전자 정지질량, 단위전하, 질량-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미세구조상수(중력, 약력, 전자기, 그리고 강한 미세 상수)가 있다. 이러한 물리상수 중의 단 하나조차도 빅뱅의 혼돈으로부터 필요한 정확한 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기에, 50개 정도의 상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진화론적 기원에 관한 모든 이론은 확률의 법칙에 모순 되기 때문에 이 전제 위에서 마찬가지로 배제되어야만 한다.

진화론적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의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단순한 수소와 헬륨 기체에서 시작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명백히 자연법칙, 즉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계는 결코 저절로 점점 더 높은 조직수준으로 변하면서 질서와 복잡성이 증가될 수 없다. 고립된 계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무질서해지면서 붕괴된다. 그리고 예외는 없다.

이 자연법칙에 반하여,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빅뱅의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단순한 수소와 헬륨 기체로부터 오늘날의 놀랄 정도로 복잡한 우주로 변한 고립계라고 믿는다. 이것은 열역학 2법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배이다. **만약 자연법칙이 자연 법칙이라면,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한 대안은 그것이 고립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If natural laws are natural laws, the universe could not have created itself. The only alternative is that it is not an isolated system.) 자연적 우주에 외인적이고 독립적인 우주의 기원의 원인이자 우주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만든 창조주가 있어야만 한다.

현재의 우주 상태는 어떠한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질서와 복잡성에 있어서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는 정상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질서와 복잡성에 있어서 증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질서와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이다. 일부 진화론적 천문학자들은 빅뱅이론을 거부하고 정상상태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한다. 그들은 첫 번째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빅뱅이론이 맞다면,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듯이, 현재의 자연법칙이 모두 다 그곳에 있고, 그곳에 항상 있어왔다면, 우주의 질서와 복잡성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야만 한다. 한편, 창조과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으므로 물질의 질서와 복잡성이 증가할 경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것이 창조 이래로 원래의 창조된 상태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났다면(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 우주의 질서와 복잡성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열역학 2법칙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가운데, 우주의 질서와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주의 모든 별은 매초 수십억 톤의 연료를 태우고 있다. 명백하게, 에너지의 공급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고 말한다) 우주는 확실히 사라지게 된다. 결국 모든 별은 모든 연료를 태우게 될 것이고 빛도 꺼지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생명과 활동이 없을 것이다. 우주는 죽게 될 것이다. 만약 우주를 지배하는 현재의 자연법칙이 우주의 죽음과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법칙들이 모두 다 그곳에 있고 모두 다 항상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그러한 불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해선 어떤 종류의 비틀린 논리가 필요하겠는가? 우주의 현재 상태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그것의 기원에 관한 모든 진화론적 이론에 모순 된다.

열역학 법칙에 관한 지식은 약 150년 전에 발달되었으나, 이 지식은 3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102:25-26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현재 그것의 상태에서 열역학 2법칙에 전적으로 일치하여, 우주는 옷처럼 닳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성경이 씌어진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히 여기에 있었고 영원히 여기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주가 시작점이 있었고, 현재는 현대과학이 측정한 대로 마멸되어서 붕괴되고 있다고 말한다. ((At the time the Bible was written, most people believed that the universe had been here forever and would continue to be here forever. The Bible says, not so, the universe had a beginning and is now wearing out and running down, just as modern science has determined.) 게다가 현대과학도 우주가 시작점이 있었어야만 함을 입증한다. 만약 우주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 있어왔다면, 오래 전에 붕괴되었을 것이다. 우주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작점이 있었으므로 우주의 현재 상태에 관한 성경의 말씀대로 “태초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Therefore, it had a beginning, and the Biblical statement, "In the beginning," has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as has its statements concerning the present state of the universe.)

이제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자. 여기에도 또한 화학자가 자연법칙에 반하는 과정을 이용하도록 강요되는 소위 말하는 생명의 진화론적 기원이 있다. 심지어 매우 단순한 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설계된 실험에서조차도, 그들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 예를 들면, 그들은 단순한 분자를 복잡한 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가정해야만 한다. 그들의 가상적 원시 지구에서 가능한 유일한 형태의 에너지는 태양, 전기방전(번개), 방사성붕괴, 그리고 열로부터 온 에너지였을 것이다. 가능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일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모든 에너지는 파괴적이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처리되지 않고 차폐되지 않은 자외선은 치명적이며, 아미노산과 단백질, DNA, 그리고 RNA와 같이 생명에 필요한 생물학적 분자를 급격하게 파괴시킨다. UV선은 분자를 붕괴시킴으로써 박테리아를 빠르게 죽인다. 박테리아에서 사람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UV선에 의해서 죽는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듯이 만약 번개에 맞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천의 원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실험에서, 파괴율(the rates of destruction)은 생성률(the rates of formation)을 엄청나게 초과한다. 그렇다면 밀러는 그의 실험에서 어떻게 적은 양의 몇 가지 아미노산과 소수의 다른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는 트랩을 사용했다. 미량의 이러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즉시 트랩 속으로 분리되었을 때, 그가 사용한 기체는 원 에너지인, (번개를 흉내 낸) 전기방전을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었다. 트랩이 없었다면, 그 생성물들은 생성률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속도로 전기방전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감지할만한 양의 생성물이 하나도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상적 원시 지구상에는 어떠한 가능한 트랩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 생성물들이 대기 중에 생성되었다면, 태양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태양도 트랩으로 작용할 수 없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곳에서조차도 파괴적인 과정들에 의해 어떠한 잔존물이라도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트랩이 이론에 치명적이다. 트랩의 목적은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물을 분리시키는 것이나 이것은 그 과정을 완전히 멈추도록 야기한다.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양의 에너지가 요구되나 트랩의 바로 그 목적은 에너지로부터 생성물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진행과정도 없다. 심지어 1960년 그 당시에도 물리학자 헐(D. E. Hull)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계에서 파괴율 대 생성률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화학적 열역학과 동역학의 증명된 원리에 의해서 배운 물리학자는 심지어 생명이 없는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유기적 성분으로 가득한 대양을 필요로 하는 생화학자(생명의 기원 화학자)에게 어떠한 격려도 줄 수 없다(Nature 186:693).”** 코아세르베이트는 단지 질서가 없는 덩그스름한 작은 덩이의 물질이다. 헐이 소위 이러한 생명의 기원에 관한 설계가 본질적으로 자연법칙과 같은 화학적 열역학과 동역학의 증명된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음에 주목하라. (In any case, a trap is fatal to the theory. The purpose of the trap is to isolate the products from the energy source, but this brings the process to a complete halt. For amino acids to join together to make a protein, a large quantity of energy is required, but the very purpose of the trap is to isolate the products from the energy. No energy, no further progress. Even as long ago as 1960 the physical chemist, D. E. Hull, taking into account the rates of destruction versus the rates of formation in these origin of life schemes, concluded that, "The physical chemist, guided by the proved principles of chemical thermodynamics and kinetics, cannot offer any encouragement to the biochemist [origin of life chemist], who needs an ocean full of organic compounds to form even lifeless coacervates" (Nature 186:693). Coacervates are mere blobs of disorganized material. Please note that Hull states that these so-called origin of life schemes are contrary to proved principles of chemical thermodynamics and kinetics, which are essentially the same as natural laws.)

진화론자에게, 역사는 “태초에, 수소가...”로 시작했고, 창조론자에게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했다. 과학과 자연법칙은 창조라는 사실에 대한 뒷받침 안에서 굳건하게 성립한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11).

“Thou are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Revelation 4:11).

* Dr. Duane Gish is Senior Vice President Emeritus of ICR. **참조**

에덴동산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 2:15-17, 3:7, 9, 21, 4:9)

창세기 2장은 에덴동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사람(Adam)에게 이 에덴동산을 맡아서 돌보라는 책임(15절)을 주셨다. 사람은 지구와 우주의 모든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고 보존해서 보다 편리하게 더 오래 살고 또 후손에게 더 좋은 에덴동산을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자유도 주셨다.(16절) 그러나 자유에는 한계가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한계를 정해 주셨다.(17절) 우리는 사람의 한계 안에서 맘껏 자유를 누리며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 버렸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무화과 나뭇잎(7절)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 한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9절) 하고 부르신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나무라시는 부르심이다. 그리고는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다.(21절) **가죽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흘리게 하신 그 피가 아니면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하고 부르시고 계신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난다. 죄에 인한 살인이 아니라 질투에 의한 것이고,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우를 죽인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하고 물으신다.(9절)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우뿐만 아니라 내 이웃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책임과 자유와 한계를 구분하며 살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정립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관계를 사랑과 정겨움으로 유지하여, 우리들의 삶을 사랑과 꿈이 넘치는 행복한 에덴동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마태 6:9-10)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 수직과 수평관계가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1994. 5) **창조**



제왕나비의 대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 지상에 독특한 한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미션 임파서블. 이번 호에서는 그 생명체의 대단한 도전, 실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체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핀 머리 정도의 작은 상태의 알로 태어납니다. 3-12일 정도 지나면 변신하여, 16개의 다리가 생기고 입은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식물만 먹으며 자라는데 그것은 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다섯 번이나 몸이 커집니다.

마침내 먹는 것을 그만두면 거꾸로 매달려 몸에서 비단실을 만들어내어 그 속에 숨는데, 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보이는 형체도 없어집니다. 온 몸이 녹아서 완전한 변신을 하게 되는데 녹색에서 갈색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오렌지와 검정색도 생겨납니다.

죽은 듯이 지내는 2주가 지난 뒤 이 생명체는 껍질을 갈라내고 나오는데, 긴 여섯 개의 다리와 입에는 길게 말려진 대롱이 달려있고 두 쌍의 주름진 날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날개를 펴덕이며 대륙을 횡단하고 지구를 여행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의 학명은 Danous Plexippus로 바로 제왕나비(monarch butterfly)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변신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우리는 변태(metamorphosis)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한 마리의 나비에게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임무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7-80년의 일생을 통해 이 땅에서 꼭 이루어내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비에게도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현실에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겨나가고 보다 큰 꿈을 위해 기도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